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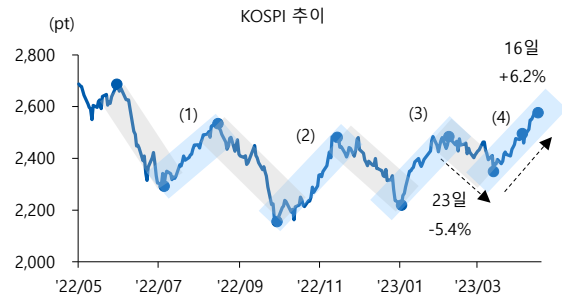


다시, 실적에 관심을 두어야 할 시간

1. 빠른 반등에 성공한 증시

- KOSPI는 2,563.11pt로, 4월에 들어서며 2,500pt를 돌파하고 2,600pt선 돌파를 시도 중
- 이전 고점을 기준으로, 저점을 확인하는데 23거래일이 걸렸지만 다시 그 수준을 회복하는 데에는 16거래일이면 충분.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봐도 빠른 반등
- 특징 중 하나인 증시의 쏠림 현상. 그동안 부진했던 상승주도 Style이 4월 들어 낙폭과대 Style을 크게 아웃퍼폼하는 중

2,500pt 돌파 후 2,600pt에 도전 중인 KOSPI
글로벌 대비 반등 강도도 강하게 나타남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1Q 실적

- 1Q 컨센서스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2~4Q 컨센서스는 반등.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조정되고 있는 업종도 3월 이후 꾸준히 증가
- 삼성전자의 실적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 실적시즌 진행 중.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
-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전망치달성률을 기록한 1분기 실적시즌. 영업이익의 전망치 상향조정은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1주전 및 1개월전 기준 컨센서스가 상향조정된 업종 Screening

1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상향 업종 Screening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섹터 등 포함

업종	영업이익 컨센서스(억 원)			변화율(%)	
	4/15일	1W전	1M전	1W	1M
증권	11,501	10,760	9,521	6.9	20.8
호텔/레저	1,354	1,225	1,174	10.5	15.4
자동차	53,157	51,414	48,243	3.4	10.2
육운	4,987	4,981	4,530	0.1	10.1
화학	11,904	10,703	10,850	11.2	9.7
기계	5,803	5,533	5,473	4.9	6.0
철강	9,762	9,659	9,296	1.1	5.0
제약/바이오	5,944	5,725	5,853	3.8	1.6
내구소비재	2,624	2,616	2,587	0.3	1.4
건설	8,026	8,012	7,927	0.2	1.2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빠른 반등에 성공한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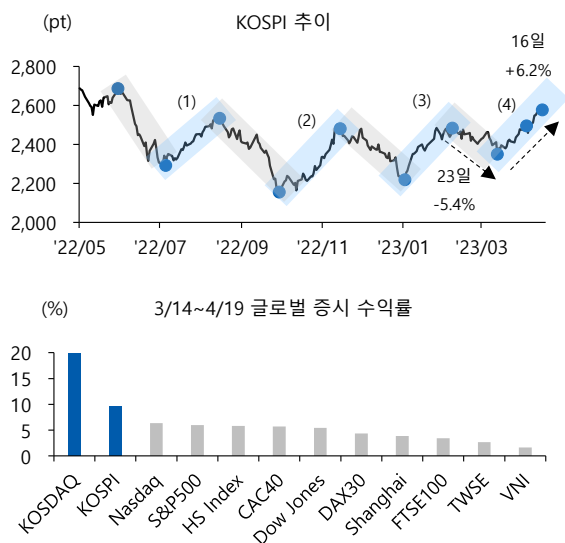
4/20일 기준 KOSPI는 2,563.11pt로, 4월에 들어서며 2,500pt를 돌파하고 2,600pt 선 돌파를 시도 중이다. 등락을 반복하던 증시는 3/14일 저점(2,348.97pt)을 확인한 후 빠르게 반등했다.

이전 고점을 기준으로, 저점을 확인하는 데 23거래일이 걸렸지만 다시 그 수준을 회복하는 데에는 16거래일이면 충분했다. 이 과정은 글로벌 주요국 증시와 대비해도 그 속도가 빨랐다. 실제로, 해당 구간에서 KOSDAQ과 KOSPI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구간에서 나타났던 특징 중 하나는 증시의 쏠림 현상이었다. 한동안 증시 내 수익률이 부진했던 상승주도 Style이 4월 들어 그 반대 개념인 낙폭과대 스타일을 크게 Outperform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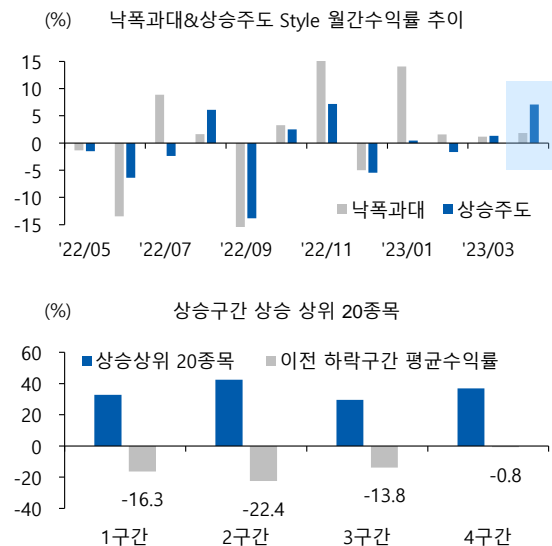
또한, 최근 증시 상승 구간을 각각 확인해 봤을 때, 이번 구간에서는 상승한 종목이 이전 부진 구간에서 수익률이 0.4%로 확인된다. 이는 이번 구간 증시를 견인했던 종목이 낙폭과대 컨셉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차트1] 2,500pt 돌파 후 2,600pt에 도전 중인 KOSPI
글로벌 대비 반등 강도도 강하게 나타남



자료: Quantiwise,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3개월 연속 부진했던 상승주도 컨셉의 반등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구간



자료: Quantiwise,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유니버스 200종목 기준

2. 조금씩 실적을 반영하기 시작한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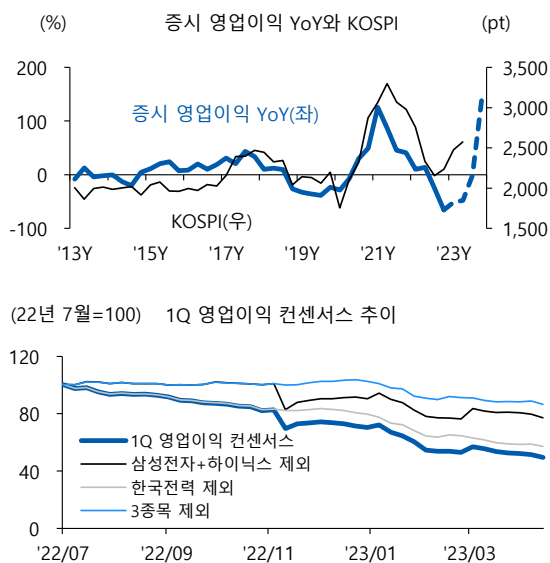
4/20일 KOSDAQ은 -2.6% 하락했다. 하루만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증시의 쏠림 현상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국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현재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익사이클의 반등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증시 전체(유니버스 200종목 기준)의 1분기 컨센서스는 여전히 하향조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도는 회복하는 과정에 있으며, 증시의 관심도 향후 1분기 실적으로 조금씩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컨센서스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2~4분기 컨센서스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과,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조정되고 있는 업종이 3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기대해볼 수 있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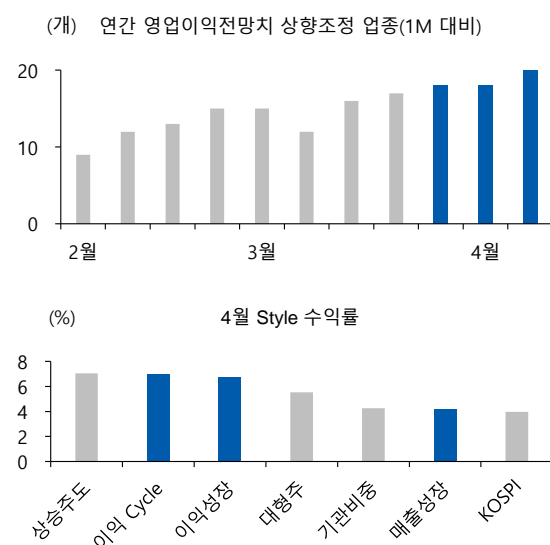
4월 Yuanta Style 지표의 성과를 체크해보면, 쏠림 현상을 대변하는 상승주도 팩터가 가장 강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수익률이 높은 팩터는 이익Cycle 상위, 이익성장 상위과 같은 펀더멘탈 관련 팩터이다. 시장이 조금씩 실적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차트3] 이익사이클 전환이 증시 상승의 필수 요소지만
아직 1Q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반등은 요원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유니버스 200종목 기준

[차트4]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상향조정되고 있는 업종이 증가하는 추세. 실적 관련 팩터의 성과에도 주목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유니버스 200종목 기준

3.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1Q 실적

4/7일 삼성전자의 실적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 실적시즌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가 80%에 못 미치는 전망치달성률을 기록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POSCO홀딩스 등 현재까지 발표된 다른 대형주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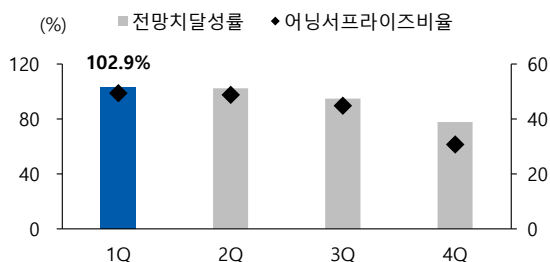
1분기는 통상적으로 보수적인 컨센서스가 제시되는 경향이 있어 전망치달성률이 다른 분기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1분기 컨센서스가 상향조정되고 있는 업종 및 종목은 그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차트6]은 1주 전 및 1개월 전 기준 컨센서스가 상향조정된 업종이다. 실적시즌이 마무리되고 결과지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들 업종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5월이 통계적으로 어닝서프라이즈 스타일의 성과가 가장 좋은 달이라는 점도 해당 접근법의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스크리닝된 업종을 보면, 최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화학, 철강 및 호텔/레저 업종과, 상대적으로 건조한 영업이익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기계 업종도 함께 스크리닝된다.

[차트5] 1분기 실적시즌은 나쁘지 않은 스타트. 1분기는 통상적으로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에 주목

코드	종목	1Q 실적(억원, %)		
		영익	컨센	달성률
A005490	POSCO홀딩스	7,000	6,320	110.8
A005930	삼성전자	6,000	7,597	79.0
A066570	LG전자	14,974	12,357	121.2
A373220	LG에너지솔루션	6,332	4,992	126.8
A247540	에코프로비엠	1,073	1,102	97.4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유니버스 200종목 기준

[차트6]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향 업종 Screening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섹터 등 포함

업종	영업이익 컨센서스(억원)			변화율(%)	
	4/15일	1W전	1M전	1W	1M
증권	11,501	10,760	9,521	6.9	20.8
호텔/레저	1,354	1,225	1,174	10.5	15.4
자동차	53,157	51,414	48,243	3.4	10.2
육운	4,987	4,981	4,530	0.1	10.1
화학	11,904	10,703	10,850	11.2	9.7
기계	5,803	5,533	5,473	4.9	6.0
철강	9,762	9,659	9,296	1.1	5.0
제약/바이오	5,944	5,725	5,853	3.8	1.6
내구소비재	2,624	2,616	2,587	0.3	1.4
건설	8,026	8,012	7,927	0.2	1.2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유니버스 200종목 기준(1M 내림치순)